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05-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사회지표: 종교 인식 조사

— 주요 종교별 호감도, 종교의 긍정적 효과 등

2020. 11. 25.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불교·천주교, 원불교·개신교, 이슬람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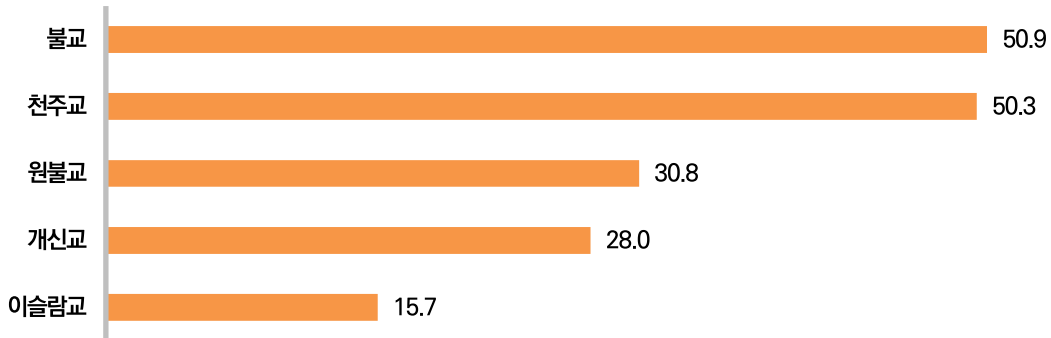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4대 종단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다. 호감도는 감정도 방식으로 측정했다.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5개 종교 중 불교와 천주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불교는 평균 50.9점으로 응답자의 41%가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준 반면, 49점 이하의 부정적인 점수를 준 응답은 28%였다. 천주교는 평균 50.3점으로 불교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불교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41%가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29%가 49점 이하의 부정적인 점수를 주었다.

개신교 호감도 점수는 28.0점으로 원불교(30.8점)보다도 2.8점이 낮았다.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준 응답자는 전체의 15%에 그쳤고, 과반이 넘는 54%의 응답자가 24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는 15.7점에 그쳤으며, 전체 응답자의 72%가 24점 이하의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보통 수준, 개신교 호감도는 28.0점, 전체 응답자의 54%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단위: 점)



(단위: %)

	매우 부정적 (0-24점)	약간 부정적 (25-49점)	중간 (50점)	약간 긍정적 (51-75점)	매우 긍정적 (76-100점)	계
불교	18	10	31	22	19	100
천주교	20	9	30	23	18	100
원불교	45	10	33	7	4	100
개신교	54	12	20	7	8	100
이슬람교	72	10	15	1	1	100

질문: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 10. 30 ~ 11. 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본인이 믿는 종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천주교(75.5점), 불교(71.4점), 개신교(62.3점) 신자 모두 본인이 믿는 종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비종교인의 평가, 그리고 본인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였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불교(48.9점)와 천주교(46.2점)에는 보통에 가까운 호감도를 보인 반면, 개신교에는 20.6점이라는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천주교와 불교 신자 역시 개신교에 대해 각각 21.3점, 19.9점이라는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비종교인의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가 15.6점, 천주교와 불교 신자의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20.8점, 17.2점이었는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믿는 종교에는 긍정적 평가
개신교 외 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은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단위 : 점)

		사례수 (명)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전체		1,000	28.0	50.3	50.9	30.8	15.7
본인의 종교	개신교	178	62.3	46.6	33.4	22.1	10.2
	천주교	133	21.3	75.5	58.1	40.8	20.8
	불교	157	19.9	47.1	71.4	35.7	17.2
	다른 종교	13	21.5	41.7	46.3	28.9	21.4
	종교 없음	518	20.6	46.2	48.9	29.8	15.6

질문 :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표본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0. 10. 30 ~ 11. 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종교를 믿는 것의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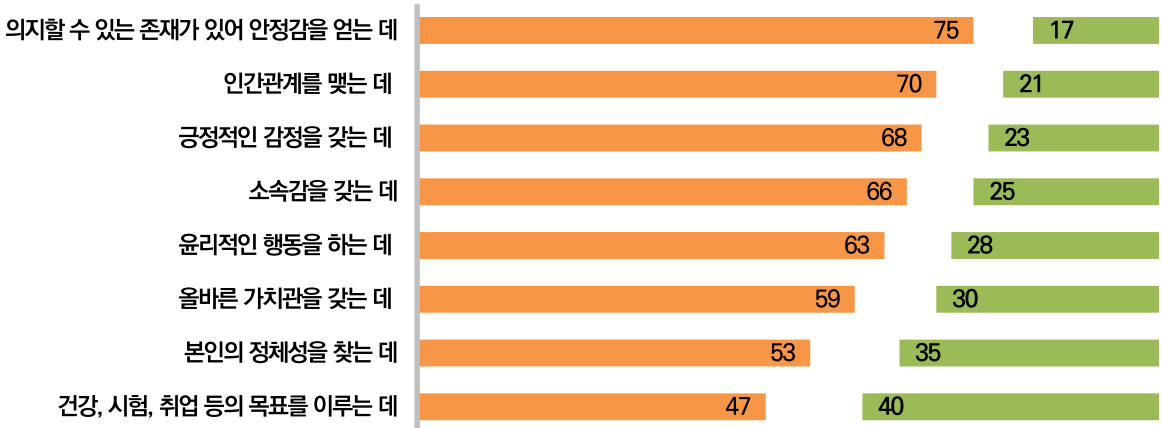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안정감, 인간관계, 긍정적 감정 순 도덕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의견 갈려

종교를 믿는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70%),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68%), 소속감을 갖는 데(66%) 도움이 된다는 응답 순이었다. 반면 건강, 시험 취업 등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47%)과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5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교를 믿는 것,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75%
인간관계, 긍정적 감정,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높아

(단위 : %)

■ 도움이 된다 ■ 도움이 안 된다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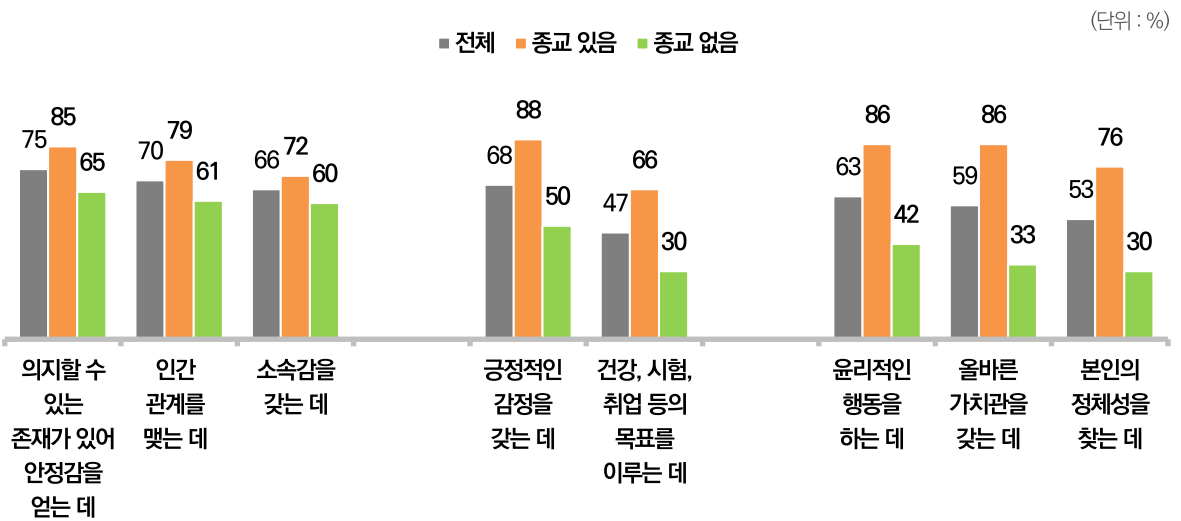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0. 10. 30 ~ 11. 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차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소속감, 인간관계, 안정감을 갖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점은 비종교인도 공감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도덕성 영역은 조금 다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86%가 종교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86%로 높았다. 종교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비종교인은 반대다. 종교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종교인은 42%,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종교인은 33%로, 모두 종교인 응답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을 종교의 가장 큰 효능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비종교인이 종교, 그리고 종교인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반감이 개인의 도덕성 부분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소속감, 인간관계, 안정감을 갖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점은 비종교인도 공감
종교가 도덕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의견 엇갈려**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0. 10. 30 ~ 11. 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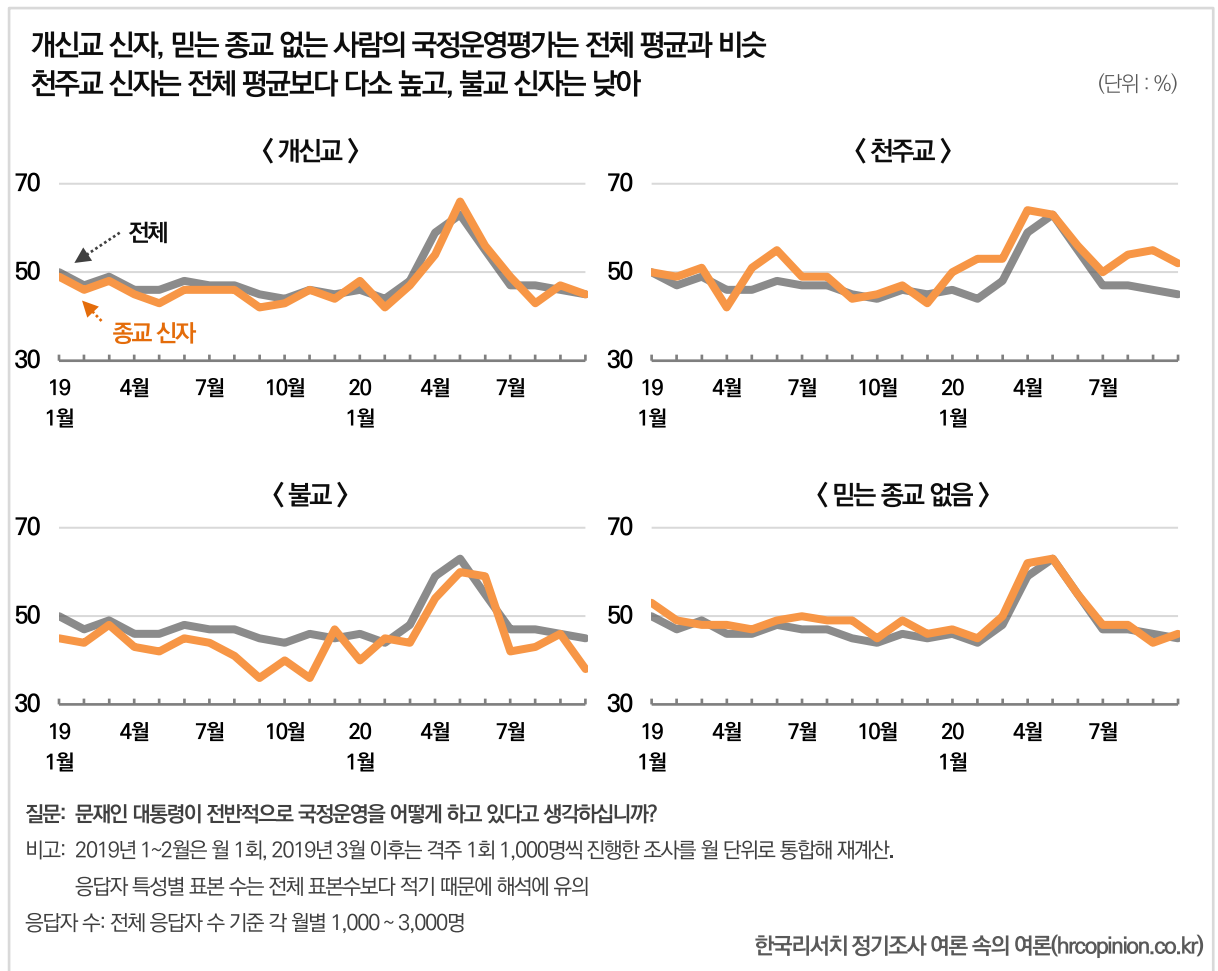
3 종교와 국정운영평가

개신교 신자, 믿는 종교 없는 사람의 국정운영평가는 전체 평균과 비슷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고, 불교 신자는 낮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에서 격주 1회 조사하는 국정운영평가를 종교별로 살펴보았다. 각 조사의 유효표본 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지만, 종교별 표본 수는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각 월별로 조사결과를 통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별 표본 수는 전체 조사의 표본 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월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45% 수준에서 큰 등락 없이 유지되었다. 올해 4월~6월 코로나19 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정지지율이 60% 초반대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하락, 7월부터는 다시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종교별 국정운영평가 흐름 역시 이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국정운영평가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천주교 신자의 국정운영평가는 올 초 이후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불교 신자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종교와 코로나19 대응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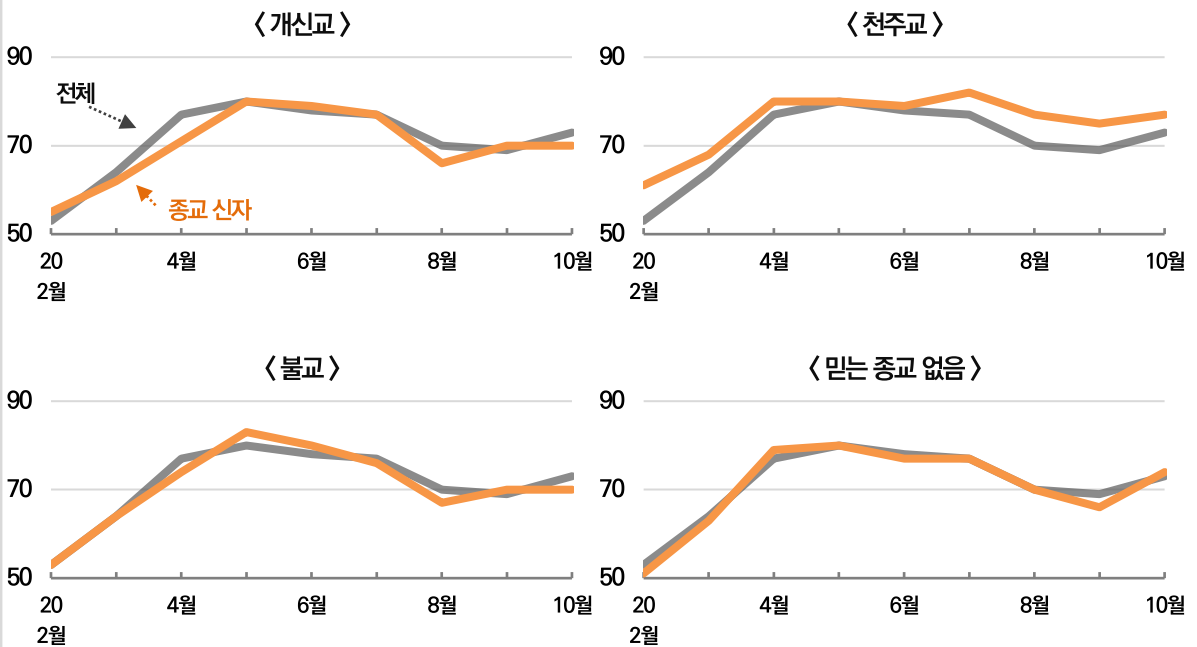
종교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천주교 신자의 평가가 높고, 개신교와 불교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종교계는 갈등을 겪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종교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였고, 일부 종교계는 이에 반발하였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특정 교회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4월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별 평가는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교활동이 제한을 받았으나, 그것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천주교 신자의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평가는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 믿는 종교 없는 사람의 국정운영평가는 전체 평균과 비슷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고, 불교 신자는 낮아**

(단위 : %)



질문: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2,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10월 기준 약 5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802명, 조사참여 1,34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8%, 참여대비 74.5%)
조사일시	• 2020년 10월 30일 ~ 11월 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